

호랑이의 용맹함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壬寅年)입니다. 호랑이는 한국인들에게 두려움과 해학, 용맹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두려운 현실이지만, 웃음을 잃지 말고 호랑이의 용맹함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한국노총은 제1 노총의 위상을 회복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많은 동지들이 한국노총 회원 조합에 가입했고, 택배·대리기사·가사서비스 분야의 노동자들이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이 대거 합류함으로써 한국노총의 제1 노총 다시 서기가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 많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권리 신장을 위해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굵직한 몇몇 성과를 내었습니다. 2020년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함께하는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여 2021년에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고 2022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미흡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반복되는 중대 재해로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현실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사노동자법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68년간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 '투명 노동' 취급을 받던 가사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제도적 개선 노력과 함께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설립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고용구조 속에서 관련 분야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여 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선배들과 조합원 동지들이 기울여온 노력이 지난해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십 년 후의 한국노총을 위한 씨앗은 지금 뿌려야 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직된 노동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코로나19로 희생당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껴안고 보호해야 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보건 전문가 여러분

한국노총은 현장을 향한 눈과 귀를 더 크게 열고,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안전 보건 문제에서도 더 이상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상처받으며 일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보건 전문가 여러분들의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쓴 충고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때로는 든든하게 때로는 매섭게 함께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은 2천만 노동자가 모두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삼켜버린 일상을 되찾고,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